



하석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애걸’로 북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나?

北은 이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평화 대화 제의에 미사일로 응답

북한이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에 발사하고, 오후에는 특별 중대발표 라면서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미사일은 평북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북한은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의도와 의지, 그리고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 공조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한국교회언론회
유만석 대표

미사일은 최대 6,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올 들어서만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결코 예외는 없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데 그 도발성이 강하다.

또 지난달에는 6·15남북 정상회담 17주년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느닷없이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도, 4일 악평을 늘어놓았는데, 북한 노동

당의 기구인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미국 상전에게 찾아가 온갖 추태를 부렸다’고 트집을 잡고, ‘남조선에서 골백번 정권이 교체되어도 송미(崇美) 사대(事大)의 구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대할 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많이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3일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축하를 통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스포츠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대화도 싫고, 자신들을 돕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평화의 협상도 거부하고, 오직 무력 도발로써만 응답하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애걸’하는 모습이어야 하나?

북한은 어떤 말로도 평화에 응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직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의지를 분명하게 꺾어야 하며,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면, 자신들 정권이 몰락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저들의 표현대로, 어설픈고 천진난만한 태도로는 오히려 조롱이 되며, 이용만 당함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변한 것이 없다.

무력남침과, 평화를 가장하여,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태도와, 그리고 무엇보다 3대를 세습하면서, 바뀌거나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대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적으로부터의 도발과 침략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어설픈 평화나 대화 제의는 저들의 도발 의지만 높여주는 어리석은 전략이 됨을 알아야 한다.

[한교연 성명서] 北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이제 북은 핵탄두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북한은 오로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반인륜적 미사일 도발로 응수함으로써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벌써 10번째이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광적 집착으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대북전략이 감광질광하는 동안 북한은 마침내 ICBM을 보유한 군사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 낙관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한국을 재개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인민이 굶어죽는 말든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 대책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설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국론이 분열되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 체계로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북의 거듭된 도발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습관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동안 북한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탄두미사일 실험 발사 성공으로 기고만장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강력한 대응 안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과,

나아가 한미일 3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시민연대 논평]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북한이 4일 오전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중대발표를 통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과 핵 수송수단인 미사일 개발·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대북

공조에 반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유지만을 목표로 불법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선택은 철저한 고립 속에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만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도발해도 남북대화 중단은 안 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늘 북한의 발표대로 ICBM 발사가 성공한 것

이라면 이전에 내놓았던 말 뿐이던 ‘강력한 조치’ 혹은 ‘대화과 협상’ 메시지로써는 북한의 핵폐기와 국제사회 복귀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 전역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은 강력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단합된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실전배치만을 남겨둔 안보위기 속에 아직도 계속되는 소모적인 사드 논쟁도 서둘러 종식해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믿고 싶은 환상만 쫓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월드비전 후원금 신청 방법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후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이동과 전지를 교환하여 선불을 보거나 이통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이통의 간접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 1회 이통간접지원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9-7000

[이슬람 전문칼럼] 격변하는 중동 이슬람권의 정세



한장총·한기총 이슬람 선교훈련원 이만석 원장

2017년 6월 7일, 중동에서 테러의 무풍지대로 자부하던 이란에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수도 중동에 있는 의회의 사당과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부라 불리는 이맘 호메이니의 묘역이 피로 얼룩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테헤란 도심의 의사당에 병인 4명이 침입하여 경비원을 사살하고 총기를 난사했다. 약 30분 뒤 테헤란 남쪽으로 20Km쯤 떨어진 이맘 호메이니 묘지에서 또 다른 무장괴한들의 총격과 자폭테러가 일어났다. 두 사건으로 총 17명이 죽고 40~5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란 당국이 보도했다.

◆이란의 상정에서 일어난 테러

이번 테러는 이란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개의 장소가 목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컸다. 의회 건물은 이란의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다. 비록 이란에서는 의회의 결정보다 종교지도자의 지침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의회가 갖는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맘 호메이니의 묘지는 이란 국민들에게 성지 중의 성지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란에서 이맘 호메이니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다. 2500년간 이어왔던 왕정국가를 혁명으로 뒤엎어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그이다. 이란의 모든 정부기관, 학교, 단체, 공공건물 및 개인 사무실까지 그의 사진이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 이란에서 사용하는 7가지 종류의 지폐에는 모두 이맘 호메이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란의 애국가는 전체가 이맘 호메이니와 그의 이슬람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란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이맘 호메이니가 성공시킨 이슬람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이란의 존재 목적이라고 공언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의 유혼정치를 한다면, 이란은 이맘 호메이니의 유혼정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은 이맘 호메이니 공항으로 명명되었고, 이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려 테헤란 도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길 오른쪽에 황금빛 찬란한 이맘 호메이니의 묘지를 보게 된다. 초중고 학생들뿐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과 단체들까지 전국에서 앞 다투어 이곳을 참배한다. 시신을 안장한 곳에는 참배객들이 헌금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걷히는 막대한 자금으로 묘지 주변에 이맘 호메이니 연구소, 이맘 호메이니 신학교를 만들었다. 테헤란에서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이맘 호메이니 지하철역도 계획 중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중동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을 자랑해 오던 이란의 자존심을 짓밟고 충격과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다.

◆이란 정부의 대처

그런데 이란 정부는 발끈하는 대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는 사건 종료 후 즉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적들이 와서 폭죽놀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이란 국민들의 결속을 다지며 충성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때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나 할까.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IS이 사건이 발생한 후 IS(Islamic State:이슬람국가)는 즉시 급변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IS는 살라피즘 혹은 와하비즘이라는 원리주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이다. IS는 금년 3월,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을 정복하여 칼리프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란을 카피르(불신자)로 선언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란을 정복하고 시아파를 박멸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IS는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지금 IS(이슬람국가)는 국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채 점령지를 계속 빼앗기면서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IS와의 전쟁 혹은 테러와의 전쟁에 온 세계가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밀려다가는 머지않아 IS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구도를 “세계와 IS와의 전쟁”에서 “이란(시아파)과 IS와의 전쟁”으

로 물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란이 IS에 반격을 가한다면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공격이 된다. 그것은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막강한 수니파 이슬람국가들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으로 하는 수니파(전 세계 무슬림의 85%)와 이란을 종주국으로 하는 시아파(15%)의 싸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로 시작되어 거의 1,4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란의 해빙과 사우디의 불안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동시에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직원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했던 것을 계기로 미국과 오랫동안 원수지간이 되었다. 미국은 항상 이란의 대적인 사우디 편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의 큰 시장인 이란에게 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란은 이맘 호메이니의 유혼, 즉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묶여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오랜 국제적 경제봉쇄 탓에 이란의 경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폭락했다.

결국 운건파를 자처한 로하니 대통령은 2015년 7월 핵무기 개발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핵 사찰단을 이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의 경제제재를 끝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질식 직전의 이란 경제는 숨통이 트이고, 해외의 큰손들이 군침을 삼키며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아파 맹주로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했던 이란이 서방국가와 해빙 모드에 접어들자 사우디는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는 이슬람권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공통의 적을 향한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

로하니 대통령의 서방과의 화해무드에 대해 이란인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리주의적인 이란의 성직자들은 핵협상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숨겨둔 미사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은밀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은 나쁜 협상’이라며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우디로서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반기듯 트럼프를 환영하였고,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기의 구입과 약 3500억 달러의 경제 거래를 합의했다. 이를 놓고 공통의 적 ‘이란’을 향한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 미국의 의중을 확인한 사우디는 이란 고립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란과 친교를 다지며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카타르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 아랍국들

얼마 전 카타르는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이란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방송했다. 이것을 발미로 사우디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등 아랍국들과 연대하여 카타르와의 외교단절을 선언하였고, 카타르를 테러지원국이라고 비난하였다. 카타르는 외부의 해킹 때문에 방송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변명했지만 외교단절을 선언한 나라는 오히려 9개국까지 늘었다. 카타르를 둘러싼 국가들이 공항을 폐쇄하고 카타르 국적자들을 추방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IS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아랍국들이 카타르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한 지 이를 만에 이란의 심장부에 테러를 가한 것이다.

◆카타르는 어떤 나라인가?

카타르는 전라남도보다 작은 영토에 인구는 서울의 1/4도 안 되는 나라다. 그 중에도 자국민은 김포시 인구보다 적은 33만 명이다. 그러나 그 작은 땅에 어디든 파이프만 꽂으면 석유가 분출되어 나오고, 지도에 표시된 유정만 66개이다. 게다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GDP(국내총생산)는 7만 달러에 이르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PPP)은 13만 달러로 최근 몇 년간 부동의 세계 1위이다.

종교적으로는 수니 이슬람국가지만 개방정책을 써서 교회 건축을 허락하는가 하면 1999년부터는 여성들의 인권과 참정권을 허락했다. 또한 세계 유명 대학들을 유치하여 중동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에 맞는 헌법도 제정했다. 무엇보다 매스컴의 막강한 힘을 간파하여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왼쪽)와 시아파의 대표국가 이란.

테스트튜브뉴스

인 알 자지라를 설립하고 매스컴을 장악했다. 알 자지라는 대중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보도하며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이것은 아랍권 절대 군주들의 초법적 횡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알 자지라 방송이 없었다면 아랍의 민주화 운동은 성공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다.

외교적으로도 카타르는 자유 개방정책을 펴 왔다. 수니파 국가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시아파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아랍 진영에서 테러단체로 지목된 무슬림 형제단과 하마스를 지원하는가 하면 그 잔당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국가가 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과도 친교를 맺어 무역대표부 설립을 허락해 주었다. 안보를 위해 강력한 친미 정책을 택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미 공군기지가 현지의 반미 감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재빠르게 공군 및 해군 기지를 받아들여 미군의 군사요충지를 만들기도 했다.

◆중동 정세의 전망

일부 매스컴은 외신을 인용하여 테헤란 테러 사건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처럼 전단하기도 한다. 이란은 한 때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IS의 테러에 대해 즉시 보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수니파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우디 역시 이란과 전면전을 치를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큰 충돌에 대한 염려는 기우로 보인다. 테러 며칠 후에 이란은 시리아의 IS주둔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테헤란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고 선언하고, 누구든 이란을 건드리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기도 제목

혹자는 이번 중동의 격변 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우디가 원리주의 이슬람 수출의 총본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우디에 팔아넘긴 엄청난 무기들이 자신들의 안방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마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넘겨준 무기들이 9.11테러가 되어 돌아온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중동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뿌리 깊은 원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카타르나 이란이나 사우디 역시 복수와 폭력을 정당화 하는 이슬람의 악한 영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들의 증오와 분노를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갖고온 글임을 밝힙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